



심창구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국민은 안전한 식품을 원한다

21 세기가 밝았어도 부정 불량식품과 허위·과대광고, 그리고 집단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이름 그대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는 체계를 잡아 줄 책임이 있는 기관이다. 이 체계를 잡는 우선적인 방법은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는 일일 것이다. 현재 식약청은 「중앙기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부정 불량식품의 제조·유통과 허위·과대광고를 엄격히 단속하는 한편, 엄청나게 밀려오는 수입식품과 단체급식을 감시하고 있다. 또한 6개 지방청 및 시도를 통하여 부적합 빈도가 높거나 유통 점유율이 높은 20개 식품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등 위해물질을 철저히 검사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춧가루에 색소를 넣는 전근대적인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 식약청장으로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 직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부정 불량식품의 제조 및 수입이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부정 불량식품의 단속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식품위생 인력의 대폭적인 보강이 절실히 필요하여 관계 당국에 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만으로 부정 불량식품이 근절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단기적인 단속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안전성이 우수한 식품만이 시장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현재 100여개 식품에 대하여 HACCP(해썹/결정적 위해인자 관리 제도)이라는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이 제도가 있는 지도 잘 모르고 있다. 앞으로 홍보를 통하여 식품 위해인자를 엄격히 관리하는 제조사의 식품이 시장에서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식품회사들도 이제 내실없는 화려한 광고보다는 타사제품에 비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시장에서 경쟁해야 할 것이다.

최근 집단식중독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과 같은 단체급식소가 전국적으로 17,000여 개소로 늘어나면서 식중독의 예방은 이제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등장했다. 식중독의 원인은 불량한 식자재를 사용했거나 비위생적으로 조리하는 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신선한 식자재를 사용하여 위생적으로 조리하면 대부분의 식중독은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식자재 납품업소로 하여금 신선한 식자재를 납품하도록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또한 조리 종사자들의 위생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한다. 일전에 한 TV 방송의 “무엇이든지 물어 보세요”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조리 종사자가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홍보한 바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CD로 만들어 전국의 조리 종사자에게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조리 종사자의 건강진단 및 조리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관련 종사자들의 의식이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

안전한 식품만이 제조·수입 및 유통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수한 품질의 식품만이 우대받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식품에 대한 국민 모두의 의식이 건전해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구운 마늘 과대광고 건에서 보듯 식품을 의약품처럼 과대광고 하는 사례도 끊임없이 발생하여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식약청은 역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비과학적인 정서를 고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한다. 비단 과대광고뿐만 아니라 각종 마스크에서도 근거도 없이 무슨 식품이 무슨 병에 좋다는 식의 소개를 함부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식품에 대한 오해와 지나친 기대가 사라지지 않는 한 허위 과대광고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식약청은 마스크와 협력하여 식품에 대한 건전한 지식이 국민의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요컨대, 안전한 식품만이 제조·수입 및 유통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수한 품질의 식품만이 우대받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식품에 대한 국민 모두의 의식이 건전해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7**